

◀기쁜 우리 날들▶ 아름다운 '승부조작'



"우리 선수가 골을 좀 넣을 수 있게 해주게."
"그러지, 안 될 게 뭐 있어."

웨스트 제퍼슨 고등학교는 2006년 10월 초 브릭스 고등학교 여자 축구팀을 불러들여 경기를 가졌다. 웨스트 제퍼슨고교 여자축구팀에는 질리안 바튼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졸업을 앞둔 19세의 바튼은 다운증후군을 앓는 소녀였다.

바튼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축구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뇌졸중을 일으켜 한동안 오른쪽 몸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보였다. 다행히 이제는 95% 정도 회복됐지만, 이런 몸으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바튼의 사정을 잘 아는 웨스트 제퍼슨 고등학교의 감독은 하프타임 때 브릭스 팀의 감독에게 다가갔다.

"3년 동안 축구에 열정을 쏟아부은 아이"라고 설명했다.

"뭔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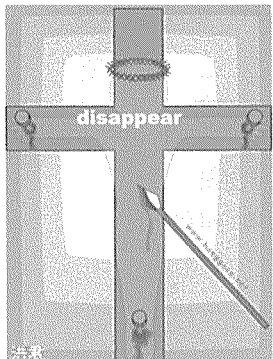
브릭스 감독은 흔쾌히 승락했다. 선수들을 불러 모아 놓고 상황을 설명하자 아이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 종료 4분여를 남기고 드디어 바튼 앞에 볼이 떨어졌다. 감독의 회상에 따르면 "3년간 축구를 하면서 경기 도중 바튼이 공을 잡은 건 이번이 두번째, 혹은 세번째"였다.

바튼이 드리블을 해 들어가자 상대 선수들은 은근히 따라잡지 못하는 듯 연기를 했다. 바튼이 슈팅을 하는 순간엔 상대 골키퍼가 반 박자 느리게 다이빙을 시도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바튼의 슈팅은 마침내 골망을 흔든다. 생애 첫 골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경기는 6대0 웨스트 제퍼슨 고교의 승리. 사실 웨스트 제퍼슨의 감독은 "바튼이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면 그 보답으로 한 골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브릭스 측은 '골 거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브릭스의 해더 스템프 감독은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 말씀▶ **Disappear**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10권 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3월 16일
☎ 36 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가 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그런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지"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해 봤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돈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만하면 돈은 따라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는 배우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그것에 많은 문제가 따른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문제는 항상 해결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우리 가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신앙 명문가문의 개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 "이제 포기하자"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말씀 따라 행하기▶

거울을 볼 때는
모양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볼 때는
본심을 보아야 한다

◀인품 따라 행하기▶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만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자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155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찬 송 Hymn	159장	
기 도 Pray		고성일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20:1-18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사랑이 부활을 만나고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50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510 총액:\$ 427,452.74

갈보리 성경 100독: 12독

◆3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2	최득수	서재오 최현철 향준직	안내부 & 권사 새교우: 백제성 노은숙
9	최재학		
16	현석호		
23	고성일		
30	권광순		

◆3월 교회력◆

	주일 & 예배	모 임
2	사순절넷째주일	구역예배(7)
9	사순절다섯째	
16	종려주일	성금요연합예배(21)
23	부활주일	구역예배(21)
30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부활절은 매해 춘분이 지나고 처음 맞는 만월을 지난 첫 주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항상 넉넉하고 환한 보름달이 있습니다. 보름달 같은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 10:10)”

1. 교우소식

<결혼식> 박은지 양(박일영 장로, 임혜자 권사). 김용찬 군(김충정. 임정순)
*28일(금) 오전 11시. St Matthew's Church (Hobson St. City)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훌륭한 인물과 달리 예수님만 무덤이 없는 것에 마음 아팠던 어린 시절, 이젠 무덤이 없어 내가 있게 되었음을 고마워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은 김용석, 최신덕 부부 집사님께서 직접 삶고 예쁘게 싸서 우리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이 예뻐서 더 고마운 선물....

3. “고난주간 금식” 헌금

*지난 고난주간 금식으로 드린 “금식헌금”은 북한의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보내겠습니다.

4.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3기』 마지막 모임. 25일(화) 저녁 7:30분.

5.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4기』 모집합니다

*꼭 한번은 화요기도모임의 기도로 성전건축을 일구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시간과 열정 그 또한 귀한 봉헌입니다.

*담당 & 참가신청: 김순자 권사 (☎837-2113)

6. 모임:마리아 여선교회 <일시> 29일(토) 저녁 5시. 김숙현 집사 자택

☎575-9780. 25 B westend Rd. Hern Bay

7. 『갈보리 성경100독』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은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 주어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 -

◀한 줄로도 긴 생각▶

아내의 생일 날, 제일 먹고 싶은 것 사줄 테니 무엇이든 말하라 했더니 “냉면” 황재한 기분을 얼굴에 나타 내지 않으려 애썼다.